

元代 詩人 范梈의 詩論과 詩*

金 俊 淵**

< 목 차 >

- 1. 서론
- 2. 본론
 - (1) 范梈의 詩論
 - 1) 治世之音의 추구
 - 2) 六觀論에 나타난 宗唐 의식
 - 3) 七律十五格
 - (2) 范梈의 詩
 - 1) 風格
 - 2) 詩體
 - 3) 題材
 - 4) 評價
- 3. 결론

1. 서론

우리나라의 中國 古典詩 연구는 대개 宋詩를 終點으로 삼는 듯하다. 간혹 元 明清詩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기도 하나 唐宋詩 연구의 풍성함에 비할 바는 아니다. 元代(1271-1368) 이후 소설과 희곡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통속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 詩 창작에서는 복고의 기풍이 대세를 이루며 唐詩나

* 본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宋詩처럼 이렇다 할 풍격이나 성취를 보여주지 못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현전하는 元詩만 해도 4천여 시인의 13만 수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全宋詩》의 27만 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全唐詩》의 5만 수를 훌쩍 뛰어넘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이다.¹⁾ 그러나 국내에서 나온 대부분의 문학사 저작에는 元詩에 관한 내용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구 논문도 근자에 나온 몇 편이 고작이다. 따라서 중국 고전시를 전반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元詩에 대한 관심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원대의 여러 시인 가운데 먼저 范梈(1272-1330)에 주목했다. 그는 ‘元詩四大家’라 하여 虞集, 楊載, 揭傒斯 등과 함께 원대 중기의 대표적 시인으로 일컬어질 만큼 성취를 인정받았다. 또 官界에 오래 머물며 영달을 누린 우집이나 개해사와는 달리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낸 데다 59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고, 文集은 사라지고 詩集만 전해지는 점, 유명한 詩論書가 남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시인’으로 손색이 없다.²⁾ 그러므로 범팽³⁾의 시론과 시를 살피는 것은 元詩에 접근하는 한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元史》의 기록에 따르면 범팽은 자가 亨父 또는 德機이며, 江西 清江 사람이다. 얇은 옷조차 버거워 보일 정도로 깡마른 체격이었으나 기억력이 비상했다고 한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36세에 고향을 떠나 원의 수도인 大都에 입성한 후 점쟁이 노릇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御史中丞 董士選의 눈에 띄어 그의 家塾으로 들어간 후부터 글재주가 널리 알려져 翰林國史院編修官으로 추천되었으며⁴⁾, 이후 閩海道知事 등의

1) 楊鑑, <元詩文獻研究>, 《文學遺產》, 2002年 第1期, 42-43쪽.

2) 楊鑑, 《元詩史》, 人民文學出版社, 2003, 466쪽.

3) 范梈의 한자음 표기를 더러 ‘범형’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梈’은 ‘나무 쇠뇌’라는 뜻이며, ‘팽’으로 읽어야 한다. 《集韻》에 ‘披庚’ 반절이라 했고, 현대중국어음은 ‘pēng’이다.

4) 揭傒斯, <范先生詩序>: (范梈)已而爲董中丞所知, 召置館下, 命諸子弟皆受學焉. 由是名動京師, 遂薦爲左衛教授, 遷翰林國史院編修官.

관직을 역임했다.⁵⁾ 원말에 간행된 《范德機詩集》 7권에 500여 수의 시가 전하며, 시론서인 《木天禁語》와 《詩學禁臠》이 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만 몇 편의 단편 논문이 나왔을 뿐, 국내에는 아직 범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범팽의 시론과 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그 대략적 면모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본론

(1) 범팽의 詩論

蔡鎮楚는 《中國詩話史》에서 “중대한 이론적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고, 치열한 문학적 논쟁도 없어 생기가 부족했다”고 元代의 문학비평을 총평한 바 있다. 宋代에 크게 유행하던 詩話類 저작이 사라지고 唐代의 詩格書가 부활한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론비평이 약화된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전통적인 교육이 황폐화되었으나, 士人 계층의 作詩 수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詩格書가 일종의 작시 교과서 역할을 떠맡게 된 데다, 도서의 간행과 유통 체계가 발달하여 이 분야의 저술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⁶⁾ 범팽도 여기에 활발히 참여하여 전술한 두 종의 시격서 외에도 《總論》, 《詩法原流》, 《吟法玄微》, 《詩家一指》 등에 이름이 오르내린다.⁷⁾ 이들 중 일부가 후인의 假託이라 하더라도, 시격서들이 이름을 빌 만한 명성이 범팽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木天禁語》와 《詩學禁臠》을 중심으로 그의 시론을 살펴볼 것

5) 《元史》 卷183.

6) 蔡鎮楚, 《中國詩話史》, 湖南文藝出版社, 2001, 148쪽.

7) 張健, 《元代詩法校考》(北京大學出版社, 2001)의 목록 참고.

이다.

1) 治世之音의 추구

역사가들은 元 成宗 大德 11년(1307)부터 약 40년의 기간을 元 中期로 구분한다. 이 무렵에는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문인들의 시 창작도 아연 활기를 띠었다. 특히 장기간 폐지되었던 과거시험이 부활한 것은 漢族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⁸⁾ 詩壇에서도 민족 간의 갈등과 투쟁이 일단락되고 평화를 되찾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歌功頌德 위주의 臺閣體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범패도 이 시기에 官界에 편입되면서 태평성세를 노래하는 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傳興礪詩集序>의 일부를 읽어보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聲音의 도리는 정치와 통한다”고 했다. 저 소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기운이 모아진 후 사물에 부딪쳐 나는 것이다. 사람이 소리를 내어 말이 되면 또 그 오묘함은 그것이 일시의 성하고 쇠하는 기운에 의지하고 감정과 이성의 바름에서 나와 형체가 言辭에 보이는 것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치세의 소리는 편안하고 즐거워 그 정치가 조화로우며, 난세의 소리는 원망하고 노하여 그 정치가 어그러지며, 망국의 소리는 슬프고 감상적이어서 그 백성이 곤궁하다”고 했다. 득실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에 시만한 것이 없다. 저 시의 도가 어찌 넓고 크지 않겠는가? 요컨대 그 귀결점은 노래를 불러 감동시키는 것을 주로 할 따름이다. (古人云: “聲音之道, 與政通.” 夫聲者, 合天地之大氣, 軋乎物而生焉. 人聲之爲言, 又其妙者, 則其因於一時盛衰之運, 發乎情性之正, 而形見乎辭者可覩已. 故曰: “治世之音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哀以思, 其民困.” 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夫詩道, 豈不博大哉? 要其歸, 主於詠歌感動而已.)

이 글은 범패의 제자인 傳若金(1303-1342)의 시집에 써준 서문이다. 그는 여기에서 <禮記> <樂記>편을 인용하여 시와 정치의 관계를 논하였는데, 發

8) 이규일, <원대의 과거제도와 원대 중기의 시풍(詩風)>, 《中國學論叢》 25집, 2009, 276쪽.

聲의 원리에 대한 시스템적 해석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즉 천지의 기운을 담아 나는 것이기에 소리는 필연적으로 時運을 반영하게 되고, 여기에 그 시대를 사는 이의 사상과 감정이 곁들여져 정치의 득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범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난세나 망국의 소리가 아니라 치세의 소리에 있다는 것을 <翰林楊仲弘詩集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일찍이 《시경》과 《초사》 이래로 한위에서 아래로 육조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더니 엉망이었다. 그러다 당나라 초기 진자앙의 무리가 한때 자연의 기가 모이는 기회를 틈타 우뚝하게 일어나 그것을 진작시켰다. 개원, 대력 연간의 소리도 여기에서 바뀌지 않다가 송대 말기에 이르러 다시 사라졌다. 지금은 천하가 문자를 같이 하고 있으나, 치세의 성대한 시로 칭송되는 것이 극히 적다. 이럴 즈음에 바야흐로 양재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하늘이 또 그에게 수명을 주지 않으니, 어찌 운명이라 하지 않겠는가. (余嘗觀於風騷以降漢魏，下至六朝，弊矣。唐初陳子昂輩，乘一時元氣之會，卓然起而振之。開元大曆之音，由是不變，至晚宋又極矣。今天下同文，而治平盛大之音稱者絕少。於斯際也，方有望於仲弘也，天又不年假之，豈非命耶.)

‘원시사대가’의 한 사람인 楊載(1271-1323)는 45세가 되어서야 부활된 과거에 응시해 합격하여 儒林郎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다. 《翰林楊仲弘詩集》 8권에 383수의 시가 전한다. 범팽은 致和 원년(1328)에 이 서문을 쓰면서 그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했다. 양재가 관직을 얻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뜬 탓에 그에게 기대했던 ‘治世之音’의大作이 나오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당나라 초기에 陳子昂이 漢魏 이후로 쇠퇴한 기상을 일으켜 개원·대력 연간으로 이어졌듯이, 송대 말기의 난세를 바로잡은 지금의 치세에도 그에 어울리는 ‘성대한 시’가 창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寄謝周文學> 시에서도 “雅가 망하고 風 또한 쇠미해졌으니, 그대에게 의지함이 또한 간절합니다(雅亡風亦衰，賴爾亦區區)”라 하여 延祐 연간(1314-1320)의 치세로 인해 한껏 부푼 문인들의 희망을 내비쳤다.⁹⁾

9) 張紅, 《元代唐詩學研究》, 岳麓書社, 2006, 116쪽.

이와 같은 治世之音의 추구는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溫柔敦厚한 시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원대 중기 시단을 아우르는 '雅正'한 시풍이 바로 이런 추세의 산물이다. 그런데 우아하고 단정함을 내세우다 보면 진실한 정감의 표출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범패 시가 더 다채롭고 훌륭한 성취를 거두는 데 얼마간 제약을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2) 六觀論에 나타난 宗唐 의식

당시를 숭상하는 기풍 속에서 雅正을 추구했던 경향은 범패의 시격서인 《木天禁語》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는 시를 논한 고금의 논자들이 병폐만을 언급하였지 그것을 치유할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그런 까닭에 '아정의 도(雅道)'가 다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⁰⁾ 요컨대 아정한 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패이 《목천금어》에서 제시한 것이 六關論이다. 六關은 '여섯 가지 관건'이라는 뜻으로, 篇法, 句法, 字法, 氣象, 家數, 音節을 말한다. 여섯 개 항목은 다시 여러 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篇法 아래에는 七言律詩, 五言長古, 七言長古, 五言短古, 七言短古, 樂府, 絶句 등의 소제목이 있고, 絶句는 또 首句起, 次句起, 第三句起, 扇對, 間對 등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는 식이다. 모든 예를 당시에서 뽑았다는 점에서 宗唐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육관 가운데 눈여겨 볼만 한 것으로는 氣象과 家數가 있다. 篇法이나 句法 등은 唐 이후의 여러 시격서에 두루 보이는 평범한 내용인 반면, 氣象과 家數에는 범패 나름의 참신한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먼저 氣象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기상이라 하면, 詩文의 기운이나 풍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범패의 경우에는 翰苑, 輦轂, 山林, 出世, 偈頌, 神仙, 儒先, 江湖, 閭閻, 末學 등의 열 가지를 기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기상은 예술적 풍모가

10) 范梈, 《木天禁語》: 古今論著, 類多言病而不處方, 是以沉痾少有瘳日, 雅道無復彰時.

아니라 신분 또는 지위를 바탕으로 한 시인의 품성이나 제재에 가깝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이상의 기상은 각기 사람의 자질과 품격의 고하에서 나온다. ……또 시의 기상은 글자의 획이 그러하듯이 長短과 厚薄, 清濁과 雅俗이 모두 인성 속에서 흘러나온다. 팔법을 얻으면 곧 뛰어난 글씨가 이루어져 나의 구태를 씻어내는 것이다.(已上氣象, 各隨人之資稟高下而發. ……又詩之氣象, 猶字畫然, 長短肥瘦, 清濁雅俗, 皆在人性中流出. 得八法便成妙染而洗吾舊態也.)

범팽은 학습을 통해 사람의 품성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서예에서 永字八法을 익히고 나면 졸렬했던 옛 글씨가 사라지는 것에 비유하였다.¹¹⁾ 열 가지의 범주가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그가 제시한 기상의 詩論의 價値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¹²⁾ 그러나 八法을 배우기 전의 ‘구태’로 지적한 ‘短, 瘦, 濁, 俗’이 얼마간 宋詩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唐詩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한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氣象論과 유사한 견해가 家數論에서도 이어진다. ‘家數’는 ‘流派 風格’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말이다. 범팽은 詩經으로부터 晚唐의 李商隱에 이르기까지 9개 유파를 학습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할 경우에 빠지는 병폐를 거론했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파	특징	병폐
詩經	思無邪	意見
離騷	激烈憤怨	哀傷
文選詩	婉曲委順	柔弱
李白	雄豪空曠	狂誕

11) 顧易生外, 《宋金元文學批評史》, 上海古籍出版社, 1996, 1058쪽.

12) 범팽의 ‘氣象’설을 호평하는 연구자도 없지 않다. 예컨대 丁放은 이것이 嚴羽의 시론을 계승·발전시켜 원대 시학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하였고(《金元明清詩詞理論史》, 安徽大學出版社, 2000, 59쪽), 蔡鎮楚는 후세의 시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앞의 책, 149쪽)

杜甫, 韓愈	沉雄厚壯	麤硬
陶淵明, 韋應物	含蓄優游	迂闊
孟郊	奇險斬截	短怪
王維	典麗靚深	容冶
李商隱	微密間艷	細碎

예컨대 “《詩經》의 특징은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思無邪)’는 것이며, 배우는 자가 이를 잘 살피지 않으면 ‘개인의 독단적인 견해(意見)’에 빠진다”는 식이다. 여기에 제시된 유파의 대부분도 당대의 시인들이다. 李白과 杜甫를 위시하여 왕유·위응물의 山水詩, 한유·맹교의 奇險한 시, 李商隱의 유미적인 시 등 初唐을 제외한 盛中晚唐의 대표적인 시인들이 망라되어 있다. 氣象論과 달리 家數論은 시가의 유파 풍격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고, ‘過猶不及’에 대한 지적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백과 두보의 특징으로 각기 거론된 ‘雄豪空曠’과 ‘沉雄厚壯’은 범패 시가 지향하고자 한 풍격을 고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다.

3) 七律十五格

범패는 《詩學禁攔》에서 전문적으로 칠언율시의 격식을 논하였다. 《木天禁語》의 六關 가운데 하나인 篇法에서 칠언율시를 고찰한 내용을 확장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唐宋의 율시를 모은 方回(1227-1305)의 《瀛奎律髓》라든가 두보의 칠언율시에 주를 단 虞集의 《杜律注》 등이 원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칠언율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詩學禁攔》의 탄생 배경으로 짐작된다. 범패이 정리한 열다섯 가지로 정리한 칠언율시의 격식은 다음과 같다.

格式	詩例
頌中有諷格	韓偓 〈中秋禁直〉
美中有刺格	李郢 〈上裴晉公〉

先問後答格	劉長卿 〈三月三日泛舟〉
感今懷古格	張祜 〈憶遊天台寄道流〉
一句造意格	李商隱 〈子初郊墅〉
兩句立意格	李商隱 〈寫意〉
物外寄意格	韋莊 〈感事〉
雅意詠物格	劉禹錫 〈答群公屬和〉
一字貫篇格	胡曾 〈思夫〉
起聯應照格	羅鄴 〈洛水〉
一意格	劉禹錫 〈江陵道中〉
雄偉不常格	殷堯藩 〈送源中丞赴新羅國〉
想像高唐格	李商隱 〈楚宮〉
撫景寓歎格	韓偓 〈惜春〉
專敘已情格	李建勳 〈仲春寫懷〉

칠언을시를 열다섯 가지 격식으로 정리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 결과도 잡다해서 썩 훌륭한 논의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인용한 시를 살펴보면, 李商隱의 시가 세 수나 포함된 것을 비롯하여 다소 中晚唐에 치우쳐 있다. 또 칠언을시의 集大成者라 일컬어지는 杜甫의 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의아하다. 그래서 明代의 許學夷는 《시학금련》이 후인의 假託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¹³⁾ ‘兩句立意格’을 예로 들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범팡이 용례로 제시한 이상은의 <寫意> 시는 다음과 같다.

燕雁迢迢隔上林,	燕 땅의 기러기 멀리 上林苑과 떨어져 있는데
高秋望斷正長吟。	하늘 높은 가을 바라봐도 보이지 않아 길게 읊는다
人間路有潼江險,	인간세상의 길에는 梓潼江의 험함이 있고
天外山惟玉壘深。	하늘 밖 산에는 玉壘山의 깊음도 있다
日向花間留返照,	해는 꽃 사이를 향하다 저녁별을 남기고
雲從城上結層陰。	구름은 성 위를 따라가다 여러 겹 그늘을 만든다
三年已制思鄉淚,	벌써 삼 년이나 고향 생각의 눈물을 참았는데
更入新年恐不禁。	다시 새해로 접어들려 하니 주체할 수 없을 것만 같다

13) 許學夷, 《詩源辨體》 卷35: 論七言律有十五格, 其所引詩, 多晚唐庸劣之作, 亦僞撰也. 책의 진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론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는 이상은이 四川 梓州에 있던 東川節度使 幕府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¹⁴⁾ 이에 대한 범평의 분석을 보자.

수련의 첫째 구가 둘째 구를 일으키고, 둘째 구가 경련을 일으켰다. 대체로 함련은 (첫째 연) 첫째 구와 호응하고, 경련은 (첫째 연) 둘째 구와 호응하며, 마지막 연은 앞의 여섯 구를 매듭짓는다. 생각이 절실하고 염려가 깊으니 성정의 바름을 얻은 것이다. (初聯上句起第二句, 第二句起頸聯. 蓋頷聯是應第一句, 頸聯是應第二句, 結尾是總結上六句. 思之切, 慮之深, 得乎性情之正也.)

위 설명에 따르면 ‘兩句立意格’의 ‘兩句’는 수련의 두 구를 가리킨다. 이 두 구가 전체 詩想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수련이 시상을 일으키는 ‘起’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법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함련과 경련이 다시 수련의 두 구와 호응한다는 점에서 起承轉結의 章法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인용한 시에서 확인해 보면, 함련은 수련 첫째 구의 ‘隔’과 호응하고 경련은 수련 둘째 구의 ‘望’과 호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열다섯 가지 격식이 다소 번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용례를 치밀하게 분석한 안목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범평의 시론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시가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贈答楊顯民四方采詩>라는 작품이다.

今人論學古人詩,	지금 사람들이 옛 사람의 시를 배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事皆天者非人爲,	그 사정이 모두 천연적이지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文章由來貴爾雅,	문장은 예로부터 아정함을 귀하게 여기지만
但願有法何妨奇,	다만 시법이 있음을 살핀다면 기이함도 어떠랴
.....	
治平之音斷可傳,	치세의 소리가 틀림없이 전해질 터이니
無庸使我心煩悵,	나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번민하게 할 필요 없으리

범평을 비롯한 원대 중기의 시인들이 한결같이 ‘옛 사람의 시’(주로 唐詩)를

14) 周鎮甫, 《李商隱選集》, 江蘇教育出版社, 2006, 277쪽.

배우려고 한 것은 그것의 천연적인 아름다움, 특히 아정함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풍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詩法을 담은 시격서가 필요했던 것이며, 시법을 알고 시를 짓는다면 얼마간의 ‘기이함’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요컨대 이처럼 唐詩를 숭상하고 아정한 풍격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治世之音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2) 범팽의 詩

범팽의 시는 《范德機詩集》 7권에 수록된 557수와 여러 서적에 산견되는 시를 합하여 580수 가량이 전해진다.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사 저작에서도 그의 시에 대해서는 생평 소개와 함께 “長篇 歌行을 잘 지었으며, 간혹 佳句가 보이기도 한다”¹⁵⁾는 정도의 소략한 평에 머물기 일쑤다. 따라서 범팽의 시 세계를 전반적으로 조감해 보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풍격, 시체, 제재, 평가의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1) 風格

袁行霈는 그의 《中國文學史》에서 범팽 시의 풍격을 두고 “歌行은 호방하고 유창했으며, 五律은 杜詩의 침울한 기풍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라 여겨진다. 범팽의 여러 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唐詩 중에서도 盛唐의 쌍두마차라 할 李白과 杜甫를 배우고자 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백에게서 주로 古詩를 배우고, 두보에게서 주로 律詩를 배워 두 시인의 장점을 두루 흡수하려고 했던 듯하다. 먼저 이백 시의 호방한 기풍이 느껴지는 시를 한 수 살펴보자. <題李白郎官湖>라는 제목의 七言古詩다.

15) 張毅, 《中國古代文學發展史》(中冊), 南開大學出版社, 2003, 497쪽.

當時郎官奉使出咸京, 당시에 낭관 張渭가 사신이 되어 京師를 나서자
 仙人千里來相迎. 신선이 천 리를 달려와 맞이했더라
 畫船吹笛弄綠水, 그림 그려진 배에서 피리로 <녹수>를 연주하였더니
 何意芳洲遺舊名. 무슨 뜻으로 아름다운 섬에 옛 이름 남겼던가
 唐祠燕沒知何代, 당나라 사당은 황폐해졌으니 어느 시대인 줄 알리오
 惟有東流水長在. 오직 동쪽으로 흐르는 물만 길이 있도다
 黎侯獨起梁棟之, 黎侯가 홀로 일어나 서까래와 기둥을 세우니
 彷彿雲中昔軒蓋. 마치 구름 속에 옛날 수레덮개 있는 것 같더라
 南飛越鳥北飛鴻, 남쪽으로 나는 월 땅의 새와 북쪽으로 나는 기러기
 今古悠悠去住同. 예나 지금이나 한가로이 떠나고 머물이 똑같다
 富貴何如一杯酒, 부귀함에도 어찌 한 잔의 술을
 愁來無地酹西風. 근심이 밀려와도 서풍에 부을 땅이 없다든가
 大別山高幾千尺, 대별산은 높이가 몇 천 척이나
 隔城正與祠相值. 성 너머에서 바로 사당과 마주하였구나
 青猿夜抱月光啼, 푸른 원숭이 밤에 달빛을 안은 채 울면서
 掛在東湖之石壁. 동쪽 호수의 석벽에 매달려 있더라
 黎侯本在斗南家, 黎侯는 본래 북두성 남쪽 宰相의 집에서
 枕戈猶自憶煙霞. 무기를 베고도 오히려 안개와 노을을 생각하였지
 祇擬將身報天子, 다만 그 한 몸으로 천자에게 보답해
 不負胸中書五車. 가슴 속의 책 다섯 수레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다
 昨者相逢玉闕下, 지난 번 대궐에서 만나고
 別來幾日秋瀟灑. 이별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가을이 쓸쓸하다
 黃葉當頭亂打人, 노란 잎이 머리맡에서 어지러이 사람을 때리는데
 門前繫著青驄馬. 문 앞에는 청충마가 매어져 있구나
 君今歸去釣晴湖, 그대 이제 돌아가면 맑게 갠 호수에서 낚시질하고
 我亦明年辭帝都. 나 또한 내년이면 경사를 하직하겠지
 若過湖邊定相見, 만약 호숫가를 지나면 틀림없이 보게 될 터이니
 爲問仙人安穩無. 내 대신 신선에게 안녕하시냐고 안부 전해주게

위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李白의 시 <泛沔州城南郎官湖>¹⁶⁾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의 서문에 따르면, 이백은 夜郎으로 귀양가는 길에 夏口에 파견된 尙書郎 張渭를 만났다. 당시 沔州라 불리던 하구 인근의 지방관들과

16) 張公多逸興, 共泛沔城隅. 當時秋月好, 不減武昌都. 四座醉清光, 爲歡古來無. 郎官愛此水, 因號郎官湖. 風流若未減, 名與此山俱.

어울려 大別山 남쪽의 南湖에서 배를 띄우고 놀던 이백은 장위가 남호의 경관에 흠뻑 취하자 그 호수에 '낭관호', 즉 상서랑 장위의 호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남호에는 이백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다가 돌보는 이가 없어 황폐해졌던 것 같다. 범팽의 시는 후에 이 사당을 보수했던 黎崱이라는 이가 경사에 왔다가 남호로 돌아가게 되자 그를 전송하며 쓴 것이다.¹⁷⁾ 一筆揮之로 속도감 있게 詩想을 전개해가는 수법에서 이백의 호방한 기풍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백을 敬慕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진다.

이처럼 호방한 풍격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는 벗과 은거를 기약하는 내용의 <凌雲篇>, 남송의 화가 錢舜舉가 그린 말 그림을 칭송한 <錢舜舉畫馬歌> 등이 더 있다.

古詩와 달리 律詩는 전적으로 두보를 배워 沈鬱한 풍격이 두드러진다. 그러한 풍격을 잘 보여주는 예로 <京下思歸>라는 시를 감상해 보자.

黃落薊門秋.	노란 잎 떨어지는 京師의 가을
飄飄在遠遊.	나부끼듯 먼 곳에서 노닐고 있다
不眠聞戍鼓.	잠 못 이루어 수루의 북소리 들리고
多病憶歸舟.	병이 많아 돌아가는 배 생각이다
甘雨從昏過.	단비가 저녁부터 지나가더니
繁星達曙流.	많은 별이 새벽까지 흐른다
鄉逢徐孺子.	고향에서 서유자를 만나면
萬口薄南州.	모든 이가 남주라고 업신여기리라

가을 날 경사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다. 제2구의 '飄飄'는 두보 <旅夜書懷> 시의 '飄飄何所似'를 떠올리게 하고, 제4구도 두보 <登岳陽樓>의 '老病有孤舟'와 표현이 닮아, 그의 율시가 두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시에 표출된 감정이 슬프면서도 웅장하고 깊은 맛이 있을 때 이를 '沈鬱'한 풍격이라고 한다면, 이 시가 바로 그러하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이

17) 利煌, 《范梈의 생平和交遊》,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30쪽.

루지 못하는 시인의 쓸쓸한 마음이 가을밤이라는 시간으로부터 비를 뿌린 후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증폭되기 때문이다. 미련에서는 원 지배층의 출신 지역 차별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서유자는 東漢의 명사인 徐穉를 가리킨다. 그는 豫章郡(지금의 江西省 南昌) 출신으로 덕행이 높아 ‘南州高士’라 불렸다. 그런데 한나라 당시에 江南은 ‘보잘것없는 지역(卑薄之域)’으로 치부되고 있었기에¹⁸⁾ 출신 지역이 비슷한 서치를 빌어 南人으로 홀대받던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침울한 풍격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는 궁벽한 지역에서의 감회를 노래한 <郡中卽事十二韻>, 두보의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시와 흡사한 분위기의 <樂會縣> 등을 더 찾아볼 수 있다.

2) 詩體

범팽은 古詩와 近體詩에 두루 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근체시에서도 五言과 七言을 엇비슷하게 창작했다. 현전하는 580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五言	七言	雜言	소계
古詩		90	56	5	151
近體詩	律詩	149	121	-	270
	絕句	19	128	-	147
	排律	11	1	-	12
소계		269	306	5	58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팽 전체 詩作의 4분의 1 가량인 151수가 古詩이고, 나머지 4분의 3인 429수가 근체시다. 근체시 위주로 창작하면서 고시

18) 《後漢書·徐穉傳》: 至於穉者, 爰自江南卑薄之域, 而角立傑出, 宜當爲先.

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분포는 杜甫와 거의 일치한다.¹⁹⁾ 오언시가 269수이고 칠언시가 306수여서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다. 杜甫의 경우 오언시가 4분지 3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晚唐五代 이후 宋代를 거치면서 칠언시가 급격히 증가했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詩體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골라 감상하면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살펴볼 것은 七言古詩의 秀作으로 평가되는 <王氏能遠樓>라는 시다.

遊莫羨天池鵬,	노닐면서 남쪽 대해의 봉새를 부러워 말고
歸莫問遼東鶴.	돌아가려고 요동의 학을 묻지 마라
人生萬事須自爲,	인생의 모든 일은 모름지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跬步江山即寥廓.	반걸음의 강산도 넓디넓을 수 있다
請君得酒勿少留,	그대에게 청컨대 술이 생기면 조금도 남기지 말고
爲我痛酌王家能遠之高樓.	날 위해 왕씨의 높은 능원루에서 통쾌히 마셔라
醉捧勾吳匣中劍,	취하면 오나라 칼집의 검을 들어올려
斫斷千秋萬古愁.	천 년 묵은 만고의 시름을 베어내노라
滄溟朝旭射燕甸,	대해에 떠오른 아침의 태양은 연나라 땅 교외를 쏘고
桑枝正搭虛窗面.	햇빛은 바야흐로 창문 앞을 때린다
崑崙池上碧桃花,	곤륜산 연못 위의 푸른 복숭아 꽃
舞盡東風千萬片.	봄바람에 천만 송이가 일제히 춤을 춘다
千萬片, 落誰家?	천만 송이, 누구 집에 떨어졌을까?
願傾海水溢流霞.	바라건대 바닷물을 기울여 유하주를 채우고자
寄謝尊前望鄉客,	술동이 앞 고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에게 고하노니
底須惆悵惜天涯.	슬피 하늘 끝에서 애태울 필요 그 무언가

이 시는 시인이 36세에 京師에 들어가서 곤궁하게 지낼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제재인 능원루는 원나라의 수도인 大都에 있었던 누각이다. 시

19) 두보의 시 1458수 가운데 古詩가 404수, 近體詩가 1054수여서 역시 각각 4분지 1과 4분지 3을 차지한다.

20) 周惠泉·楊佐義, 《中國文學史話》(遼金元卷), 吉林人民出版社, 1998, 488쪽.

인은 이 누각에 올라 그의 호쾌한 기상을 맘껏 펼친다. 첫 두 구에서부터 '남쪽
대해의 봉새'와 '요동의 학'²¹⁾에 마음 둘 것 없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고,
통쾌하게 술을 마신 뒤 만고의 시름을 털어내자고 했다. 변화무쌍한 詩想의 전
개는 李白의 고시를 방불케 하고, '바닷물을 기울여 유하주를 채운다'는 표현에
서는 李賀의 기발한 착상이 연상되기도 한다. 원대 시인이 이백을 배운 시의
대표작이라는 평을 수긍할 만하다.²²⁾ 王春庭의 지적²³⁾대로 후반부의 '滄溟' 4
구가 내용이 모호하고 표현이 纖弱하여 전체 詩想과 잘 어울리지 않는 점이
흠이기는 하나, 범팽 고시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다.

고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원 정부의 文繡局 설립으로 피해를 입
은 민주의 자수 공예공을 노래한 <閩州歌>와 도굴꾼을 질책하는 내용의
<掘塚歌> 등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과 여족의 사회풍습을 묘사한 <西黎歌>,
경사에서 발생한 지진을 그려낸 <己未行> 등 다양한 내용의 것이 더 있다.

근체시에서는 오언율시와 칠언절구 한 수씩을 살펴보기로 한다.

已新寒食火.	이미 한식날의 불 새로 피웠고
更近暮天鐘.	다시 저녁의 종소리가 가까이 들린다
花片隨風減.	꽃잎은 바람따라 줄어들고
柴扉帶月重.	사립문은 달빛 받아 무거워진다
以閒酬宦達.	한가함으로 관도의 영달에 보답하고
將病抵心慵.	병으로 마음의 나태함을 벌충한다
本不從耕稼.	본래 농사에 종사하지 않았기에
臨江愧老農.	임강의 늙은 농부에 부끄럽다

<寒食後百丈山夜坐>

범팽은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新喻(지금의 江西省 新餘市)의 百丈山 자락
에 기거하였다. 이 시에는 그 무렵의 생활환경과 여유로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함련은 가볍고 섬세한 晚唐詩의 풍격인 듯하다가, 다시 경련에서는 침울

21) 요동 사람 丁令威가 신선이 되어 학으로 변해 날아돌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22) 李夢生, 《元明詩三百首注評》, 鳳凰出版社, 2008, 44쪽.

23) 王春庭, <論元詩四大家>, 《閩江學院學報》, 2003년 제3기, 6쪽.

한 杜詩의 풍격이 엿보인다. 그것은 寒食의 두 가지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한식은 晉文公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뒤 綿山에 은거했던 介子推의 고사에서 유래되었고, 절기상 清明과 잇닿아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백장산에 은거하고 있는 시인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지도 못한 채 관직에서 물러나 농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던 것이다.²⁴⁾ 바로 몸의 가벼움과 마음의 무거움이 충돌하는 대목이며, 그의 오언율시가 杜詩의 맥을 잇는 일면이기도 하다.

孤篷如磨遶汀沙, 외로운 배의 뜸 갈아놓은 듯 물가 모래섬을 휘감고
葉滿平湖藕未花. 너른 호수에 연잎만 가득한 채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回首竹西亭漸遠, 고개 돌리니 죽서정 점차 멀어지는데
一江煙雨酒旗斜. 온 강에 안개비 내려 술집의 깃발 기울다
<離揚州>

양주를 떠나며 지은 시다. 제3구에 보이는 죽서정은 양주성 북쪽에 있었으며, 杜牧의 시구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²⁵⁾ 보통 여름에 피는 연꽃이 아직 피지 않았고, 안개비가 내린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주의 봄을 묘사한 듯하다. 唐代 들어 크게 번성했던 양주는 元代에도 揚州路總管府가 설치되어 인근 5개 州를 관할하던 요충지였다. 이 시의 제4구에서 '술집의 깃발'로 양주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도 여전히 환락의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범팽이 무슨 일로 양주에 들렀다 떠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시 전편에 깔린 客愁가 진한 여운을 남긴다. 明 胡應麟은 元詩四大家의 우열을 논하면서 범팽은 칠언절구가 뛰어나다고 했는데²⁶⁾, <離揚州>와 같은 시가 그 방증이 아닐까 한다.

근체시의 수작으로는 산에 은거한 뒤의 쓸쓸한 심정을 담은 五律 <九日諸

24) 康麗雲, <范梈詩略論>, 《贛南師範學院學報》, 1998년 제6기, 104쪽.

25) 杜牧, <題揚州禪智寺>: 誰知竹西路, 歌吹是揚州.

26) 胡應麟, 《詩薮》外篇 卷6: 大抵四家古詩歌行伯仲, 楊五言律・排律勝, 揚七言律勝, 范七言絕勝, 虞差兼備.

生攜酒至城東看菊>,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즐거움을 노래한 七律 <歸來>, 社神錢을 구걸하는 아이들을 묘사한 七絶 <社日>, 福州의 봄날 경치를 깔끔하게 그려낸 <春日西郊> 등이 있다.

3) 題材

범패 시의 제재는 다소 협소한 편이다. 동료 시인과 주고받은 社交詩가 227수로, 전체 시의 5분의 2를 차지한다. 그 밖에 紀行(105수), 詠懷(53수), 題畫(52수), 詠物(44수) 등이 주요한 제재를 이룬다. 愛情詩는 한 수도 없으며, 詠史詩나 社會詩도 열 수 미만이다. 또 그가 숭상했던 唐詩의 주요 제재인 邊塞나 山水田園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새롭게 개척한 제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제재의 폭이 좁아진 것은 시종일관 治世之音과 雅正함을 추구한 시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소재로 눈을 돌리지 못한 까닭에 시의 성취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재가 협소하다고 하여 佳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요 제재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한 수씩 살펴보자. 먼저 <送陳從事歸江東二首>라는 송별 시의 첫째 수이다.

長年京下送人歸,	한 해 꼬박 京師에서 돌아가는 이 전송하면서
初及扁舟指翠微,	처음 조각배에 이르러 푸른 산을 가리킨다
豈意遂聞鴻鵠操?	어찌 끝내 기러기의 가락 듣게 될 줄 알았으랴?
卻須同制芰荷衣,	도리어 함께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지어야 할 것을
淸江碧樹重重見,	맑은 강 푸른 나무 겹겹이 보이고
紫燕黃鸝處處飛,	월나라 제비와 피꼬리 여기저기서 난다
如此交遊二三輩,	이렇게 사귀며 놀던 두세 사람
何因中歲每相違?	어째서 중년 되어 매년 헤어지는 것인가?

강동으로 돌아가는 陳從事를 전송하는 시다. 제4구에 보이는 표현은 屈原의 《離騷》에 나오는 것으로²⁷⁾, 은자의 옷을 말한다. 함께 벼슬에서 물러나 은

거하려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련은 類類相從하는 자연경물을 빌어 우정을 형상화한 것이고, 함련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중년에 오히려 헤어지는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다. 수식을 절제한 담박한 표현 속에 眞情을 넉넉하게 담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볼 만한 사교시로 <章義門送人還南城觀臺>, <送馬掾還湖南>, <寄上甘肅吳右丞>, <秋日集詠奉和潘和二使君浦編修諸公十首>, <追和盧修撰張平章園亭觀花飲> 등이 손꼽힌다.

이어서 기행을 제재로 한 <發湖口>라는 시를 보자.

已過匡廬卻向西,	이미 여산을 지나 다시 서쪽으로 향하는데
片帆猶逐暮雲迷,	일엽편주는 오히려 저녁 구름을 따라 사라진다
路長正是思親節,	길은 먼데다 바로 아버지 그리운 시절이니
取次驚猿莫浪啼,	제멋대로 어지러운 원숭이들 함부로 울어대지 말아라

이 시는 湖口縣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려냈다. 호구현은 이름 그대로 鄱陽湖가 長江으로 흘러드는 어귀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서 장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가면 廬山을 감아 돌아 지금의 湖北省 경내로 들어서게 된다. 일엽편주는 고향을 등지는 시인의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난 듯 저녁 구름을 따르고²⁸⁾, 원숭이 울음소리는 아버지 그리운 마음을 더욱 부채질한다. 기행 중의 심리를 정갈하게 표현한 시라 하겠다.

역대로 호평을 받았던 기행시로는 강서성 南昌을 여행하며 지은 <鍾陵夜宿聞鐘>, 福州 南台산에 있는 閩粵王의 사당을 찾은 <遊南台閩粵王廟> 등이 있다.

범패 시의 제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題畫詩가 많다는 것이다. 宋代 이후 문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제화시 창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⁹⁾ 그 가운데 <題秋山圖>라는 시를 살펴보자.

27) 《離騷》: 制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

28) 《金元明清詩詞曲感賞辭典》, 光明日報社, 1990, 277쪽.

29) 李南鍾, <宋代 題畫詩의 類型과 意境에 관한 考察>, 《中國文學》, 제35집, 2001, 2쪽.

我愛秋景好,	내가 멋진 가을 경치를 좋아하는 것은
自緣秋氣清.	가을 기운이 맑기 때문이지
江空石露骨,	강이 비어 바위가 뼈를 드러내고
木落風無聲.	낙엽 떨어져 바람이 소리 없다
偶向畫中見,	우연히 그림 속에서 보았는데
猶如雲外行.	오히려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다
祇疑豺與虎,	다만 승냥이와 호랑이
無地得縱橫.	활개치고 다닐 곳은 없으리라

‘秋山圖’라는 그림에 쓴 시다. 시인은 그림에 묘사된 가을 경치를 감상하다가 마치 實景인 듯 그 속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虛實의 경계를 무너뜨린 후라 함련에서 한껏 구사한 動的인 묘사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杜甫의 <登高> 시 “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 연은 쓸쓸함마저 감돌 만큼 맑은 가을의 기운을 그려냈다.³⁰⁾ 그림은 또 실경과 달리 상상 속의 세계를 가미할 수도 있기에, 그림을 감상하던 시인은 이윽고 仙界로 접어든다. 그런데 미련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승냥이와 호랑이’는 이제까지 전개되던 詩想과 어울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반영했다는 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³¹⁾ 가을 경치를 그린 그림을 보고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장면인 까닭이다.

위 시 외에도 <題黃隱君秋江釣月圖>, <題張果老騎驢圖>, <張月梅子昂竹石圖歌> 등이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제화시로 평가된다.

끝으로 詠物을 제재로 한 작품을 한 수 보기로 한다. <古干將>이라는 시다.

髮髮古干將,	날카로운 그 옛날의 간장검
--------	----------------

중국에서 제화시의 본격적인 창작은 盛唐 시기 杜甫와 李白 등 시문학의 대가에 의하여 비롯되었고, 宋, 元, 明, 淸을 거치면서 문학과 회화에 이름이 알려진 인사라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 예술활동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宋代에 孫紹遠은 당송시인의 제화작품을 수집하여 《聲畫集》 8卷으로 펴낸 바 있고, 淸 陳邦彥은 《御定歷代題畫詩類》 120권에 唐代에서 明代에 이르는 사이의 작품 8900 여 수를 실고 있다.

30) 李夢生, 앞의 책, 45쪽.

31) 《元明清詩鑑賞》, 21쪽.

經世不再見.	세월이 지나도 다시 보이지 않네
豐城匣已空.	풍성의 칼집 이미 비었고
龍亦久當變.	용 또한 오래되어 마땅히 변했을 터
百怪日夜出.	백 가지 괴물이 밤낮으로 출현하니
思爾一斷劒.	네가 단칼에 베줄 것 생각난다
裝佩美紛紛.	장식한 패물 아름답게 이어졌으니
不爾眞百鍊.	네가 아니라 진짜 백련검이로다
又恐百怪飛.	또 백 가지 괴물이 날아다니며
翻著他人身.	다른 사람의 몸에 달라붙을까 두렵고
麒麟或失所.	기린이 혹 제자리를 잃으니
魍魎氣益神.	도깨비의 기운 더욱 세차다
不如且深藏.	차라리 잠시 깊이 숨어서
慎勿干星辰.	삼가 별자리 침범하지 말아라
我歌干將行.	내 간장검의 노래 불러
庶爲君子陳.	군자들에게 펼쳐 보려 하노라

‘干將’이라는 칼을 제재로 한 시다. 干將은 춘추시대에 吳王 闔閭를 위해 만듦
 들었다는 寶劍이다. 그 후 행방이 묘연했던 이 칼은 豐城縣令 雷煥에 의해 다시
 발굴되었다고 한다. 그가 성을 뚫다가 지하에서 干將이 든 돌 칼집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인은 이 칼이 다시 보이지 않음을 한탄했다. 그런
 까닭에 ‘백 가지 괴물’의 출몰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백련검’으로 비유된 실력
 자들은 괴물을 제압하기는커녕 더 날뛰게 만들기만 할 뿐이어서 시인은 차라
 리 나오지 말라고 권한다.³²⁾ 영물시이면서도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날카롭다.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띤 작품들이 있어 협소한 제재를
 얼마간 보완해주었다고 하겠다.

4) 評價

陶宗儀의 《南村輟耕錄》에는 元詩四大家의 한 사람인 虞集이 다른 세 사람
 과 본인의 시를 평한 내용이 실려 있어, 이들 四大家의 시를 논할 때 곧잘 인용

32) 康麗雲, 앞 논문, 103쪽.

된다.

일찍이 우집 선생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楊載의 시는 어떠합니까?” 우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양재의 시는 백 번을 싸워본 건아 같습니다.” “范梈의 시는 어떻습니까?” “범팽의 시는 당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의 서첩을 臨摸한 것 같습니다.” “揭傒斯의 시는 어떠합니까?” “게혜사의 시는 미녀가 꽃비녀를 꽂은 것 같습니다.”³³⁾ “선생님의 시는 어떠합니까?” 우집이 웃으며 말했다. “제 시는 한나라 조정의 늙은 관리입니다.” (嘗有問於虞先生曰: “仲弘詩如何?” 先生曰: “仲弘詩如百戰健兒.” “德機詩如何?” 曰: “德機詩如唐臨晉貼.” “曼碩詩如何?” 曰: “曼碩詩如美女簪花.” “先生詩如何?” 笑曰: “虞集乃漢廷老吏.”)

범팽을 평한 대목에 보이는 ‘임모[臨]’는 ‘글씨의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 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범팽이 古人, 특히 唐代의 시인을 모방하는 데 열중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범팽의 시에는 분명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다. 薛雪의 《一瓢詩話》에 인용된 범팽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는 평소 시를 지은 뒤 읽어 보아 고인과 흡사하지 않으면 불태워버렸다고 하였고 때문이다.³⁴⁾ 또 실제 창작에서도 李白과 杜甫를 따르려 한 흔적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방’이라는 한마디로 그의 시를 평가하는 것도 실제와 꼭 부합하지는 않는다. 게혜사의 평은 어떤지 살펴보자.

범팽의 시는 가을 하늘에 지나는 구름이 맑은 날 천둥이 치며 비를 몰고 오듯 변화무쌍하고 드나들며 흔적이 없다. 또 빈 산의 도인이 외진 골짜기에서 신선술을 배운 듯 마른 골격에도 강인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넘친다. 또 사나운 매가 말을 덮치고 홀로 있는 학이 무리를 부르듯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은 없는데 만 리에 푸르름이 펼쳐져 있다. (范德機詩如秋空行雲, 晴雷卷雨, 縱橫變化, 出入無朕, 又如空山道者, 辟谷學仙, 瘦骨峻嶒, 神氣自若. 又如豪鷹掠馬, 獨鶴叫群, 四顧無人, 一碧萬里.)³⁵⁾

33) 게혜사의 시에 대한 평이 어떤 판본에는 ‘시집온 지 사흘된 새댁(三日新婦)’으로 되어 있다. 이규일, <게혜사의 시학사상과 시풍> (《中國文學理論》, 제11·12합집, 2009), 201쪽 참고.

34) 薛雪, 《一瓢詩話》: 范德機云: ‘吾生平作詩, 稿成讀之, 不似古人即焚去.’

35) 揭傒斯, 《揭文安公文粹》, <范梈詩集序>.

이 말들은 게혜사가 그의 시집에 서문으로 써준 것이어서 우집의 평과 달리 칭송 일색이다. 과장이 지나치다고 할 만한 부분도 발견된다. 그러나 범팽의 詩風이 다양했다는 말에 다소 수식을 더한 것이라면 수긍할 만한 평가라고 생각된다.³⁶⁾ 이어서 《元詩選》을 펴낸 淸 顧嗣立(1669-1722)의 평을 들어보자.

글을 지음에 강하고 힘이 있었으며 한대 초기의 고시를 따라가고자 해 특히 가행을 즐겨 지었고 근체시에도 능했다. 온화하여 충신과 효자의 감정이 드러나기에 吳澄(1255-1330)은 그를 동한의 여러 군자에 비긴 바 있다.(爲文雄健, 追慕先漢古詩, 尤好爲歌行, 工近體. 藹然見忠臣孝子之情焉, 吳文正(澄)嘗以東漢諸君子擬之.)

범팽의 시는 《원시선》 初集에 234수가 수록되었다. 고사립의 평은 元詩 연구의 전문가다운 맛이 느껴진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은 까닭이다. 범팽은 여러모로 보아 ‘바른생활 사나이’(충신과 효자)다운 성격의 소유자라 여겨진다. <詠古> 시에서 “아정한 도리가 날로 어두워지니, 육의를 누가 조화시킬까?(雅道日以晦, 六義誰折衷?)”라고 탄식한 것처럼, 기질적으로 속된 것을 멀리하고 아정함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시종일관 온유둔후함에서 크게 벗어나는 법이 없었던 듯하다. ‘詩窮而後工’이라는 주장도 있거니와, 범팽이 어렵게 진입한 官途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를 시인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京師에서 문장으로 인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翰林國史院編修官으로 발탁되어 實錄을 편찬한 뒤에는 곧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海南海北道廉訪司照磨, 江西廉訪司照磨, 福建閩海道知事와 같은 八·九品の 말직을 역임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권력과 은둔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진실함이 담긴 詩情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범팽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려면 ‘元詩四大家’란 용어의 오용부터 바로 잡아야 할 듯하다. 이 말은 마치 범팽 등의 네 사람이 元詩에서 가장 큰 성취를 보였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분명히 실제와 다르다. 元好問이나 楊維禎

36) 鄧紹基, 《元代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2006, 424쪽.

과 같이 이들의 전후에 활약하면서 더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던 시인들이 엄연히 있었기 때문이다. ‘元詩四大家’를 대체할 만한 용어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初唐四傑’에서 따온 ‘中元四傑’이다. 즉 원대 중기의 걸출한 시인 네 사람이라는 말이다. 범팽은 이 ‘中元四傑’ 가운데 懷才不遇型의 시인으로서 고시와 근체시에 두루 능했으며 社交詩와 紀行詩를 많이 남겼다고 한다면, 비교적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대 시인 가운데 ‘元詩四大家’의 한 사람인 범팽을 대상으로, 그의 시론과 시 세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범팽은 14세기 초 원대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었던 때 활약한 시인이다. 貧寒한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한 그는 40세가 다 되어 官界에 들어섰으나, 編修官으로 잠시 京職에 머물렀을 뿐 대부분의 시간은 지방에서 말직을 맡았다. 그런 까닭에 580수에 달하는 그의 시는 태평성대를 노래하면서도 臺閣體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신세와 사회의 굴곡에까지 정감 어린 시선을 던져 다수의 가작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먼저 그의 詩論을 살폈다. 원대의 문학비평은 詩話를 중심으로 한 이론비평이 쇠퇴하고 作詩法을 논구한 詩格書가 유행했는데, 범팽의 시론도 주로 《木天禁語》와 《詩學禁籟》같은 시격서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의 시론은 治世之音의 추구, 宗唐 의식이 반영된 六關論, 七律十五格으로 요약된다. 민족 간의 첨예한 갈등이 완화되면서 과거제가 부활하는 등 사회 각 방면에서 盛世의 면모를 보여주던 원 중기에 활약한 범팽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담아내는 治世之音의 시를 창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그것의 풍격은 아

정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퇴한 아정함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여섯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六關論을 펼쳤다. 그 가운데 시인의 품성이나 제재를 다룬 氣象과 유파 풍격을 논한 家數에서 시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七律十五格은 칠언율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원대 시단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칠언율시의 격식을 열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으로, 모호한 분류 기준이 흠으로 지적되기는 하나 용례를 치밀하게 분석한 안목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 모든 용례를 唐詩에서 추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宗唐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범팽의 시 세계를 風格, 詩體, 題材, 評價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범팽의 시는 당시의 양대 산맥인 李白과 杜甫를 두루 배워 이들 시인의 대표적 시풍인 ‘豪放’과 ‘沈鬱’이 교차되는 양상이었다. 古詩에서는 호방한 풍격이 두드러지고, 근체시에서는 침울한 풍격이 주를 이루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범팽의 시 580수를 시체별로 분류해 본 결과, 고시와 근체시, 오언과 칠언이 고루 창작되어 조화로운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체시 위주의 창작 속에서 고시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았으며, 당시 유행하던 칠언시 못지않게 오언시도 상당수를 남겨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다. 제재가 협소한 점은 결점으로 지적된다. 寄贈, 唱和, 送別을 제재로 한 社交詩가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紀行, 詠懷, 題畫, 詠物 등이 주요한 제재를 형성하였다. 범팽 시에 대한 평가로는 동시대의 虞集과 揭傒斯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의 견해는 얼마간 편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元詩選》의 편집자인 顧嗣立의 객관성에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기존의 ‘元詩四大家’라는 용어를 ‘中元四傑’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범팽 이 원시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보인 네 사람 중의 하나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권력과 은둔 사이에서 진실함이 담긴 詩情을 발휘했던 원대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이라는 명성은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시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 參考文獻 >

- 기태완, 《요금원시선》, 보고사, 2009.
- 顧易生外, 《宋金元文學批評史》, 上海古籍出版社, 1996.
- 鄧紹基, 《金元詩選》, 人民文學出版社, 2009.
- , 《元代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2006.
- 劉達科, 《遼金元詩選評》, 三秦出版社, 2004.
- 上海古籍出版社編, 《元明清詩鑑賞》, 1998.
- 楊 鐮, 《元詩史》, 人民文學出版社, 2003.
- 袁行霈, 《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9.
- 李夢生, 《元明詩三百首注評》, 鳳凰出版社, 2008.
- 張 健, 《元代詩法校考》, 北京大學出版社, 2001.
- 張 毅, 《中國古代文學發展史》(中冊), 南開大學出版社, 2003.
- 張 紅, 《元代唐詩學研究》, 岳麓書社, 2006.
- 田 軍外, 《金元明清詩詞曲感賞辭典》, 光明日報社, 1990.
- 丁 放, 《金元明清詩詞理論史》, 安徽大學出版社, 2000.
- 周鎮甫, 《李商隱選集》, 江蘇教育出版社, 2006.
- 周惠泉·楊佐義, 《中國文學史話》(遼金元卷), 吉林人民出版社, 1998.
- 蔡鎮楚, 《中國詩話史》, 湖南文藝出版社, 2001.
- 李南鍾, <宋代 題畫詩의 類型과 意境에 관한 考察>, 《中國文學》 제35집, 2001
- 이규일, <계해사의 시학사상과 시풍>, 《中國文學理論》 제11·12합집, 2009.
- , <원대의 과거제도와 원대 중기의 시풍(詩風)>, 《中國學論叢》 25집, 2009.
- 王春庭, <論元詩四大家>, 《閩江學院學報》, 2003年 第3期.
- 康麗雲, <范梈詩略論>, 《贛南師範學院學報》, 1998年 第6期.
- 楊 鐮, <元詩文獻研究>, 《文學遺產》, 2002年 第1期.
- 利 煌, 《范梈的生平和交遊》,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中文提要 >

元代中期是元詩的盛季，從創作實踐到詩歌理論，都呈現出彬彬之盛的局面，最能代表元詩的特徵。以“虞楊范揭”這四大家為核心的中期詩人中，范梈是頗有特色的一位。范梈論詩，

主要是唱導詩法、詩格之說，這是對唐代詩學的一種回復與規摹。例如，他的詩格書《木天禁語》論詩倡“雅道”，標舉篇法、句法等，謂之“六關”，其中“氣象”、“家數”等範疇所論的內容，繼承了前人的說法，作出了更為深入的闡釋。

范梈詩以歌行體為最擅名，他的詩集中歌行體詩占四分之一左右，其豪放超邁，類於唐詩人李白。在律詩方面，范梈更近於杜甫，尤其是五言律詩，很有似近於杜詩五律那種沈鬱而凝鍊的風格。他是衆體兼備的詩人，無論古體與近體或五言與七言，都有一些人口脍炙的佳作名篇。范梈詩的主要題材，除寄贈、唱和、送別等社交方面以外，還有紀行、詠懷、題畫、詠物等等。

要之，范梈是元代典型的詩人，也可以說，“中元四傑”中的佼佼者。

關鍵詞：范梈、元詩四大家、治世之音、雅正、宗唐、豪放、沈鬱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9.12.24	2010.1.30	2010.2.1	2010.2.8	2010.2.28

